

## 강원도개발공사 신임 사장 김길수 최종선정

강원도개발공사 신임 사장에 김길수(59·사진)전도 총무행정관이 임명됐다.

최문순 도지사는 25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 후보자 2명 가운데 김전 총무행정관을 신임 사장으로 최종 선정했다. 김 신임 사장은 영월출신으로 영월고와 안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강원대 대학원 정책학 석사. 1971년 춘천시에서 공직을 시작, 도 예산과장과 전략산업과장, 화천군 부군수, 도 재난안전실



장, 도 녹색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사장은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도간 업무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알펜시아 매각 업무를 비롯한 당면 현안 조기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강원도개발공사의 흑자 기록 달성과 경영 정상화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내달 1일 열린다. 박지은

## 내주 도내 8건 224억원 규모 시설공사 입찰 진행

다음주 한주간 도내에서 220억원대의 시설공사 입찰이 진행된다. 조달청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도내 8건에 224억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주한 한 시험장의 고저온 환경시험실 증축공사 입찰이 오는 29일 2억2100만원의 기초가격으로 진행된다.

특히 30일에는 가칭 ‘퇴계초등학교’ 신축공사 입찰이 148억9300만원의 기초가격으로 진행되며 같은날 해당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입찰이 25억7500만원의 기초가격으로 별도로 열린다. 또 해당 학교의 소방공사와 통신공사가 각각 10억7500만원, 10억2700만원의 기초가격으로 같은날 별도 입찰이 실시된다. 신관호